

偏衫 着衣法 研究

李 玄 姬

Lee, Hyeonhee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 머리말

佛像研究에서 形式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圖像的인 규범과도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像의 자세, 手印과 함께 法衣가 입혀진 모습 등도 주요한 관찰 대상이 된다.¹⁾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法衣着衣法에 의한 기준²⁾을 설정하면 먼저 착의방법이 通肩인가 右肩偏袒인가, 또 內衣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옷주름 표현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불상에 표현된 착의법을 보면 지금까지의 通肩·右肩偏袒의 二分화된 착의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상이 적지 않아 기존의 佛像 着衣法 전반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端的인 예로 慶州 南山의 三陵溪石造如來坐像 ②<도판 1, 1-1>의 착의표현을 살펴보면 불상 앞면은 양쪽 어깨 모두를 법의로 감싸고 있는데 반해 뒷면에는 법의를 사선으로 입어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앞면은 通肩, 뒷면은 右肩偏袒의 着衣法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착의 표현상의 의문에서 본고는 출발하였다. 불상 앞·뒷면의 착의표현이 다른 경우 이러한 착의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이러한 착의표현이 가능하게 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偏衫 着衣法'³⁾이

1) 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p. 337.
2) 着衣法の 기준에서 보면 삼국시대에는 軍守里 蠟石製如來坐像,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과 같은 通肩 着衣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7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皇龍寺址金銅藥師如來立像과 같은 右肩偏袒 着衣法이 새로 나타나며, 통일신라시대 石窟庵 本尊像 이후로 크게 유행하게 된다.
3) 右肩偏袒의 大衣 아래에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팔을 덮고 있는 옷에 대해 근래 학계에서 명칭과 기원, 그리고 생김 모습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鄭禮京(『중국 복제·복주 불상연구』, 혜안, 1998.)과 金春實(『三國時代 如來像 研究-着衣形

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제작사례를 통해 편삼 착의법의 특징과 제작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偏衫 着衣法

편삼 착의법은 기존의 통견, 우견편단 착의법과의 비교에서 더욱 분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에서는 편삼 착의법과 구체적인 착의방법과 옷주름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견 착의법은 속옷인 腰布 위에 장방형의 대의 한쪽 끝을 오른쪽 허리 앞에 끼워 넣고, 오른쪽 옆구리부터 비스듬히 가슴을 지나 왼쪽 어깨에 가져와 목 주위를 한바퀴 돌린다. 목 주위를 크게 감은 천을 이번에는 느슨하게 몸통을 감싸듯이 한번 더 목 주위를 한바퀴 돌리고 그 끝은 왼쪽 팔 위에 걸치거나 왼쪽 어깨 뒤로 넘긴다.⁴⁾ 이렇게 착의한 통견 착의법이 불상에 표현될 때에 앞면은 양쪽 어깨 모두를 대의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뒷면은 몸통 전체를 감싼 대의 위에 삼각형의 대의 끝자락이 왼쪽 어깨 위에 표현된다. 이때 U자형 옷주름이 불상 전체에 표현되고 내의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통견 착의법은 똑섬출토 金銅如來坐像과 南宮鍊所藏 金銅如來坐像 등 삼국시대 불상 중에 그 예가 많으며 통일신라시대에도 慶州 甘山寺石造如來立像<도판 2>과 慶州 南山의 仁旺洞石造如來坐像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우견편단 착의법은 천을 감아서 앞면의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가져오는 것은 통견과 같으며 오른쪽 옆구리부터 몸의 앞·뒷면을 비스듬히 감아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고 그 끝자락은 다시 왼쪽 어깨 뒤로 넘긴다. 우견편단 착의법은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어깨 위로 연결되는 사선의 옷주름이 표현되며, 대의 아래에는 사선의 내의 끝자락 일부를 볼 수 있다.

우견편단은 인도 굽타기의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서역

式的 分析을 중심으로, 弘益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3.)은 偏衫으로, 文明大(「百濟四方佛의 起原과 禮山石柱四方佛像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 1987, 민족사.)는 鬱多羅僧으로 보고 있으며, 大西修也(「百濟佛再考-新發見의百濟石佛と偏衫を着用した服制をめぐって」, 『佛教藝術』149, 1983.)는 2枚의 大衣를 通肩과 右肩偏袒으로 겹쳐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김춘실은 통견 착의법 중에서 대의 끝자락을 왼쪽 팔 위에 걸치는 것을 北魏式, 왼쪽 어깨 뒤로 넘기는 것을 北齊式으로 세분하고 있다. 金春實, 앞의 논문, pp 54~89.

을 통해 인도의 불상을 수용한 단계인 복위 전기에 채용되기 시작한 착의법이 다.⁵⁾ 우리 나라에서는 통견 착의법에 비해 다소 늦은 7세기 전후의 불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에 이르러 많은 제작사례를 볼 수 있는데 석굴암 본존불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그 이후 유사한 예가 다수 제작되었다.

이상 통견과 우견편단 착의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통일신라시대 불상 중에는 大衣 외에 偏衫을 착용한 새로운 착의법이 나타나 주목된다. 그 예로 慶州 南山의 三陵溪石造如來坐像②<도판 1, 1-1>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불상은 처음 보면 통견 착의법을 따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우견편단의 대의 위에 오른쪽 어깨와 팔·가슴을 감싸는 또 하나의 옷자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偏衫이다. 三陵溪 불상의 예로 보아 착의 방법은 먼저 대의를 우견편단으로 입고, 노출된 오른쪽 어깨를 편삼으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편삼 착의법은 중국에서는 북제나 북주의 작품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 네즈미술관상<도판 3>에서는 편삼을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며, 上海博物館像<도판 4>에서는 내의와 함께 꿰매서 소매처럼 착의한 작품례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慶北 榮州 宿水寺址金銅如來坐像의 경우 우견편단의 대의에는 사선의 옷주름선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어깨 위의 편삼에는 옷주름을 전혀 표현하지 않아 대의와 편삼을 구별하고 있다. 또 慶州 南山 三陵溪石造如來坐像②에서는 편삼 끝자락을 일정한 너비의 띠로 장식하여 대의와 구별하였다. 또한 慶州 栢栗寺靑銅如來坐像의 경우 엷은 채색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견편단의 대의에는 붉은 주색, 편삼에는 녹색으로 칠해 색채로 대의와 편삼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채색 표현은 고려시대 불화로 이어져 녹색의 편삼을 착의한 여래가 다수 제작되었다.

Ⅲ. 편삼 착의 불상의 제작사례

앞서 살펴본 법의 착의방법을 기초로 통일신라시대 편삼을 착의한 불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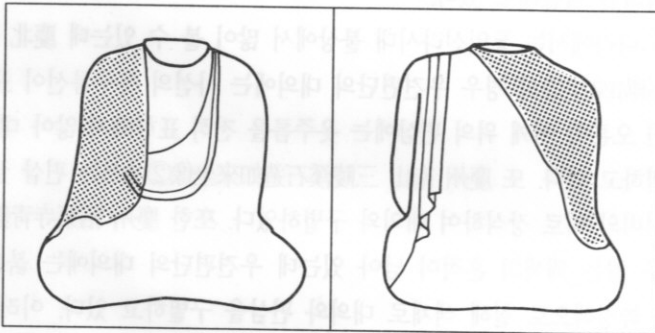
5) 정예경, 앞의 책, p 128.

1. 慶州 南山 새갓골石造如來坐像형 <도판 5, 5-1> <도면 1>

경주 남산의 새갓골에 위치한 이 불상은 조각기법이 선명하여 착의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⁶⁾

먼저 불상 앞면의 착의표현을 살펴보면 大衣는 오른쪽 허리에서 왼쪽 어깨 위로 연결된 사선의 옷 끝단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팔은 다른 옷자락 즉, 편삼으로 감싸져 있다. 이때 오른쪽 어깨 위에서 내려 온 편삼은 허리 부분에서 대의 안으로 살짝 끼웠다 다시 빼서 그 끝은 무릎 뒤로 돌려져 있다.

여기서 불상 뒷면의 착의표현을 살펴보면 大衣는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왼쪽 어깨 위로 연결된 사선의 옷자락 표현되어 있고, 왼쪽 어깨에는 大衣 끝자락이 겹쳐져 있다.⁷⁾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목 뒤에 음각선으로 표현된 옷 끝단으로, 이것은 왼쪽 어깨 위의 대의와 구별되는 제2의 법의인 편삼을 착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편삼은 오른쪽 어깨와 팔을 감싼 뒤 팔꿈치 아래로 소매처럼 길게 늘어뜨려져 있다.



<도면 1> 慶州 南山 새갓골 石造如來坐像

이상을 종합하면 이 불상은 내의인 僧脚屐 위에 2종류의 겂옷을 착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먼저 大衣를 우견편단으로 입고, 이때 노출된 오른쪽 어

6) 이 불상은 발견 당시 광배와 대좌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불상도 앞으로 넘어진 채 보고되었다. 불상 뒷면에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를 연결하는 사선의 대의 옷자락과 다시 왼쪽 어깨 위에는 대의 끝자락이 넘겨져 있어 우견편단 착의법으로 보고된 바 있다. 李浩官, 『慶州 南山·金鰲山·磨石山 新發見 遺蹟』, 『文化財』11호, 文化財管理局, 1977.

7) 이 옷자락은 우견편단의 대의 끝자락을 표현한 것으로, 우견편단 착의법의 전형적인 끝단 처리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석굴암 본존불을 들 수 있다.

깨·가슴과 팔을 감싸는 편삼을 착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도면 1>과 같다. 이러한 착의법은 옷주름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견편단의 대의 위에는 사선의 옷주름, 편삼 위에는 수직의 옷주름을 표현하여 두 옷자락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慶州 南山 미륵굴에 위치한 菩提寺石造如來坐像<도판 6>과 葺長溪藥師如來坐像이 있으며 榮州 可興里磨崖如來坐像, 安東 安奇洞石造如來坐像, 醴泉 靑龍寺石造如來坐像, 金川 靑岩寺石造如來坐像, 居昌 陽平洞石造如來坐像, 昌寧 觀龍寺石造如來坐像<도판 7> 등이 있다. 제작사례로 보아 이 유형의 불상은 지역적으로는 慶州와 慶州 以北지역을 중심으로, 시기적으로는 8세기와 9세기 초반의 불상에서 많은 제작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예로는 敦煌莫高窟 제244호굴의 本尊佛과 阿難像, 敦煌莫高窟 제45호굴 僧侶像<도판 8>을 들 수 있다.

2. 慶州 南山 三陵溪石造如來坐像②형 <도판 1, 1-1>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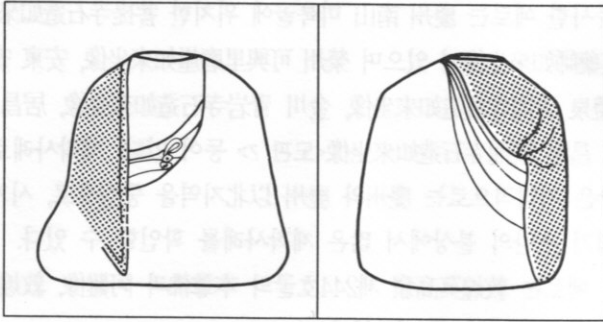
慶州 南山 삼릉계곡 입구에 위치한 三陵溪石造如來坐像②은 현재 머리와 두 손이 결실되었으나 불상 앞·뒷면의 법의 표현이 분명하여 법의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이다.

불상 앞면은 우견편단의 대의 위에 편삼을 자연스럽게 늘어 뜨려 대의와 편삼 끝단이 逆 y자형으로 겹쳐져 있다. 이 불상도 뒷면에서 편삼 착의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왼쪽 어깨 위로 연결되는 긴 사선의 옷자락은 우견편단으로 착의한 大衣자락이며, 대의 아래에서 나온 편삼은 오른쪽 어깨 앞으로 넘겨졌다. 편삼은 어깨와 가슴을 가리고 무릎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는데 그 끝을 삼각형으로 표현하였고 가장자리는 일정한 너비의 띠로 감싸 대의와 편삼을 의식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도면 2>와 같다. 삼릉계불상의 편삼 착의 방법은 편삼자락을 대의 안으로 살짝 집어 넣은 새갓골 불상과 달리 편삼을 자연스럽게 대의 위로 늘어 뜨리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榮州 榮州里石造如來立像, 慶州 冠峰石造如來坐像<도판 9>, 榮豐 黑石寺石造如來坐像, 慶州 斗笠里磨崖如來立像과 慶州 南山의 三陵溪石造如來坐像①<도판 10>, 葺長溪三輪臺座如來坐像, 부영골磨崖如來坐像<도판 11>과 密陽 舞鳳寺石造如來坐像을 들 수 있다.

제작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은 9세기 초반의 慶州 南山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⁸⁾ 대의 왼쪽 어깨 위에는 어깨 끈장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9세기에 이르러 법의 표현에 새로운 장식적 요소가 첨가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도면 2> 慶州 南山 三陵溪石造如來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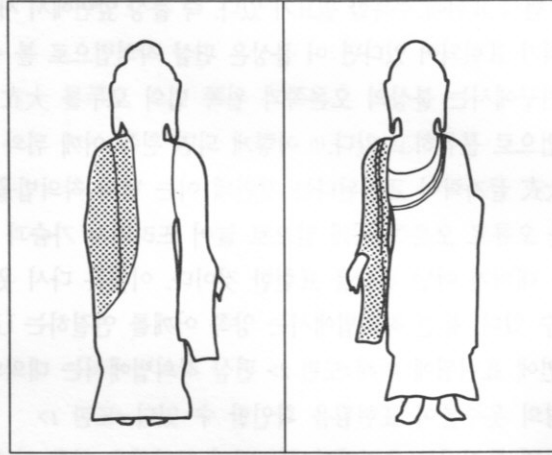
3. 金銅藥師如來立像(보물 328호)형 <도판 12, 12-1> <도면 3>

금동 불상에서도 편삼 착의법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이 불상은 양쪽 어깨 모두를 법의로 가리고 있어 통견인 듯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견편단의 대의 위에 편삼을 착의하고 있다. 대의는 오른쪽 허리와 왼쪽 어깨를 사선으로 연결된 우견편단으로 입고, 그 위에 偏衫을 걸치고 있다. 불상 뒷면을 보면 사선의 대의 끝단은 생략되었으나 왼쪽 어깨에 대의 끝단이 표현되어 있다. 이 불상은 오른쪽 옆구리와 팔은 하나의 옷자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왼쪽 옆구리와 팔 사이는 빈 공간을 두어 대의와 편삼을 의식적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편삼을 걸친 오른팔은 몸통부분과 구별하여 따로 주조하여 끼웠다.

옷주름 표현에서도 편삼 착의법을 확인할 수 있다. 우견편단의 대의 윗부

⁸⁾ 경주의 남산은 寺址와 石塔, 그리고 70여 구에 달하는 크고 작은 石佛과 磨崖佛들이 여러 골짜기마다 주변의 자연 속에 묻힌 채로 천여 년을 지내온 新羅 불교문화의 寶庫라 할 만하다. 이 南山이 新羅時代 불교활동의 중심지였음은 『三國遺事』에 보이는 여러 불교설화와 創寺緣起 등에 등에 의해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金理羅,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일조각, 1991, p 351; 金元龍·姜友邦, 『慶州南山』, 悅話堂, 1987;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朝鮮寶物古蹟圖錄, 1940; 韓國佛教研究院, 『新羅의 廢寺Ⅱ』, 一志寺, 1977) 지금도 경주 남산에는 사지 120여개소와 석탑 71기, 석불 87구가 전한다. 國立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의 佛教遺蹟Ⅱ』, 1997; 國立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의 佛教遺蹟Ⅲ』, 1998.

분은 사선의 옷주름으로 표현되다가 배 아래에서는 U자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편삼에는 어깨 위에서 떨어지는 직선의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편삼 가장자리는 지그재그로 접혀 있으면서 새갓골石造如來坐像처럼 편삼을 대의 안으로 넣어 고정하지 않고 스카프처럼 자연스럽게 걸치고 있다. 이 약사금동불상의 편삼 착의방법은 오른쪽 어깨 전체를 가린 앞서의 두 형식과는 달리 어깨 일부만을 가리고 있다.



<도면 3> 金銅 藥師如來立像(보물 328호)

IV. 偏衫 着衣法의 특징

偏衫 着衣法은 불상 앞·뒷면에 표현된 옷 끝단의 중첩과 옷주름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通肩·右肩偏袒 着衣法과 비교 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偏衫 着衣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불상 뒷면의 착의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다⁹⁾. 이때 편삼 착의법에서는 두 종류의 옷자락을 볼 수 있는데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를 연결하는 사선의 대의와 그 아래 오른쪽

9) 法衣는 장방형의 一枚布 大衣를 외투로 휘감아 입고 있어서 그 전체 착의 방법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浮彫像의 경우 배경이 생략되므로 착의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자료적 가치를 반감하고, 圓刻像의 경우도 뒷면이 광배로 가려지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진자료에 의존하는 경우, 背面의 착의표현을 확인하기란 더욱 어렵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점이 연구의 한계였음을 밝힌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편삼이 그것이다. 이렇게 불상 뒷면에서 편삼 착의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는 慶州 南山의 새갓골石造如來坐像과 三陵溪石造如來坐像 ②, 葺長溪 三輪臺座石造如來坐像과 慶北 金川 石造毘盧遮那佛坐像과 芬皇寺 出土 石造如來坐像 등이 있다.

그러나 불상 뒷면은 광배로 가려져 있거나, 착의 표현이 생략되어 뒷면의 착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불상 앞면에 나타난 착의 표현에서 편삼 착의법을 구별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불상 앞면의 중첩된 법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불상 앞면에서 사선의 대의 위에 중첩된 법의가 표현되어 있다면 이 불상은 편삼 착의법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불상의 오른쪽과 왼쪽 법의 모두를 大衣로 보아¹⁰⁾ 이를 통견 착의법으로 분류하고 있다.¹¹⁾ 이렇게 되면 왼쪽 어깨 뒤와 오른쪽 어깨 앞, 두 곳에 大衣 끝자락이 표현된다는 것인데 이는 법의 착의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로 오른쪽 어깨 앞으로 늘어 드러져서 가슴과 팔을 감싸고 있는 옷자락은 대의가 아닌 편삼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옷주름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견 착의법에서는 양쪽 어깨를 연결하는 U자형의 옷주름이 법의 전면에서 표현됨에 비해 <도판 2> 편삼 착의법에서는 대의와 편삼이 겹쳐진 逆 y자형의 옷주름이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도판 1>

다시 말하면 통견이든 우견편단이든 대의 끝자락은 왼쪽 어깨 뒤 또는 팔 위에서 끝 마무리하게 되므로 오른쪽 가슴 앞으로 법의 끝자락이 표현된다면 이것은 大衣와 구별되는 제2의 법의, 즉 편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오른쪽 어깨 앞으로 넘어온 편삼 자락은 경주남산 새갓골 석조여래좌상처럼 우견편단의 대의 안으로 살짝 끼웠다 다시 빼거나, 삼릉계 석조여래좌상①처럼 대의 위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기도 한다.

셋째, 편삼 착의법은 內衣 착의 유무에서도 구별할 수 있다. 통견 착의법은 대의를 목 위로 높이 끌어 올려 착의하므로 대부분 內衣 표현을 하지 않지만 편삼 착의법의 경우 먼저 대의를 우견편단으로 착의하므로 대의 아래에 사

10) 통견의 법의 착의방법을 보면 먼저 대의 한쪽 끝을 오른쪽 허리에서 고정시키고 온 몸을 감싼 후 나머지 한쪽 끝은 왼쪽 어깨 뒤로 넘겨서 마무리하게 된다. 편삼 착의형에서는 왼쪽 어깨 뒤와 오른쪽 어깨 앞으로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있다. 왼쪽 어깨 뒤의 옷자락은 대의 끝자락임에는 틀림없으나 오른쪽 어깨 앞의 옷자락을 대의 옷자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 양쪽 어깨 모두를 법의로 감싸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통견 착의법으로 볼 수 있으나, 두 옷의 종류와 착의 목적에 다름에 유의하여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편삼 착의법이라 할 수 있다.

선의 內衣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편삼의 세부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永州 宿水寺址金銅如來坐像<도판 13>은 옷주름 표현으로 대의와 편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견편단의 대의에는 사선의 옷주름을 범의 全面에 표현하는 반면 편삼에는 옷주름을 전혀 표현하지 않아 제작자 스스로 편삼 착의법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적인 편삼 표현은 慶州 南山 三陵溪石造如來坐像②<도판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불상은 편삼자락을 오른쪽 어깨 앞에서 무릎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데 그 끝 가장자리를 일정한 너비의 띠로 감싸 대의와 편삼을 구별하고 있다. 또 慶州 栢栗寺靑銅如來立像<도판 14>의 경우 색채 표현으로 대의와 편삼을 구별하고 있다. 즉 우견편단의 대의는 붉은 주색으로, 왼쪽 어깨 위의 편삼은 녹색색으로 채색하여 대의와 편삼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편삼의 색채 표현은 다시 고려불화로 이어져 붉은 주색의 대의와 녹색색의 편삼을 착의한 여래가 다수 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삼 착의법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형적 표현과 함께 편삼 착의법은 도상적으로 항마촉지인 불상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동일시기 지권인 불상의 경우 통견 착의법이 많음을 감안한다면 편삼 착의법과 항마촉지인의 도상적 결합은 더욱 분명해진다. 항마촉지인과 편삼 착의법과의 도상적 결합은 항마촉지인의 등장 배경¹²⁾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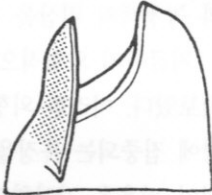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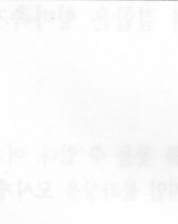


- 12) 항마성도상의 도상은 玄奘의 『大唐西域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인도의 마가다 부다가야의 摩訶菩提大精舍(大覺寺)에서 항마촉지인 불좌상을 모시게 된 경이로운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精舍는 이미 이룩되었다. 工人들을 모아서 如來가 처음 佛道를 이루신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오래 있다가 한 婆羅門이 와서 여럿에게 告하기를 나는 如來의 妙한 像을 잘 圖寫할 수 있노라. 대중들이 말하기를 佛像을 만들고자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香과 進 糞이라 하였다. 이것을 精舍의 가운데에 마련해 주고 아울러 한 燈을 비추어 주고 내가 이 문안에 들어간 후에 문을 굳게 닫고 6개월 후에 문을 열라 하였다. 이때 여러 중들이 모두 그 뜻을 따랐다. 6개월에서 4일이 모자라던 날 大衆들이 모두 금급하여 문을 열어 보았다. 精舍 內의 佛像이 의연히 結跏趺坐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른발은 앉은 자리 위에 올려놓고 왼손은 모으고 오른손을 내려 뜨렸다. 東面을 보면서 숙연하게 앉아 있었다. 像의 높이는 1丈 1丈 5치 양 무릎 사이는 8丈 8치 양쪽 어깨는 6丈 2치 金剛座 높이는 4丈 2치 넓이는 1丈 2丈 5치였다. 相散이 원만히 다 갖추어지고 자비스러운 얼굴 모습이 정말과 같았다. 단지 오른쪽 가슴 주위를 다 칠하지 못 하였다. 이미 사람은 보이지 아니했으나 비야 흐로 그 神變을 증험했다. 모두 슬퍼하여 은근히 알고자 했다. 한 沙門이 원래 마음

이 기록(註12 참조)에서 '오른쪽 가슴은 다 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 향마촉지인 불상의 착의법은 우견편단이 주류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다시 우견편단 착의법은 노출된 오른쪽 어깨와 팔·가슴을 가리는 편삼의 착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마촉지인을 걸하면서 편삼을 착의한 중국의 불상 중 가장 이른 예로는 炳靈寺石窟 제53龕과 54龕의 삼존불이다. 특히 이 불상은 681년이라는 절대연대가 있어 중국에서는 7세기 후반에 향마촉지인과 편삼의 도상적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 通肩·右肩偏袒·偏衫 着衣法

		通肩 着衣法	右肩偏袒 着衣法	偏衫 着衣法
그림	앞면			
	뒷면			

이 순박해서 마침내 감응하여 꿈에 婆羅門에게 가서 보니, 말하기를 나는 慈氏菩薩(彌勒菩薩)인데 工人들이 聖容을 헤아리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노라. 그래서 내 직접 와서 불상을 圖寫하였다. (像이) 오른손을 내린 것은 옛날 如來가 장차 부처의 果報를 얻으려 할 때 妖魔가 와서 희롱하매 地神이 말하기를 그 첫째 地神이 나와서 佛을 도와 악마를 항복시킬 것이다. 如來가 말하기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忍力으로써 그를 기필코 항복시킬 것이다. 이에 魔王이 말하기를 이 땅이 중인이다. 이 때 제 2 地神이 춤추며 나타나 증명하였다. 고로 이제 손을 나타내는 데에는 옛날에 밀으로 내린 것을 모방한 것이다. 대중들이 신령스러움을 알아서 悲愍한 생각을 품지 않는 자 없었다. 이때 가슴 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에 온갖 보물과 구슬과 보관으로 진기하게 걸쳐서 장식을 하였다.

金理那, 『印度佛像 中國傳來考』,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1, pp 276~277 ; 玄奘, 權德周 譯, 『大唐西域記』, 우리출판사, pp 238~239.)

Ⅲ. 통일신라시대 偏衫 着衣佛像의 제작배경

편삼 착의법은 우견편단으로 노출된 오른쪽 어깨를 가리기 위한 별도의 작은 천을 대의 위에 착의한 것이다.¹³⁾ 이러한 편삼 착의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 기존 연구는 문헌을 토대로 중국의 의복습관과 기후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신체 특히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¹⁴⁾, 기후 또한 인도와 다르기 때문에 대의를 우견편단으로 입었을 때에는 노출된 오른쪽 어깨를 덮는 별도의 천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偏衫이다. 즉 편삼 착의법이란 우견편단으로 노출된 오른쪽 어깨와 가슴·팔을 덮기 위해 사용된 작은 천(小衫)인 만큼 먼저 우견편단 착의법이 중국에 유입된 이후에 이를 중국 현실에 맞추어 개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이다.¹⁵⁾ 또한 편삼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창안된 것¹⁶⁾이니 만큼 당연히 중국 以西지역의 불상에서 편삼을 착의한 작품례는 전혀 볼 수 없다.¹⁷⁾

또 편삼 착의법은 北魏代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¹⁸⁾ 이 시점은 불상의 中國化¹⁹⁾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편삼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3) 『大宋僧史略』 卷上「服章法式」條

又後魏宮人見僧自恣 偏袒右肩 乃一施肩衣 號曰偏衫 全其兩扇衿袖 失祇支之體 自魏始也

14) 『儀禮注疏』刑을 받으면 右袒한다.

『禮記』父母喪을 당하여 奔喪할 때 袒服한다.

『史記』膠西王이 반란에 실패하고 袒服으로 太后에게 사죄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의복 습관으로 보면 우견편단을 한다는 것은 죄인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偏袒右肩이 佛教의 正服이라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이 착의법을 불상의 법으로 수용하는데는 많은 갈등과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5) 정예경, 앞의 책, p 131.

16) 久野健「東ヤシ」ヤの佛像と偏衫, 『古代小金銅佛』, 小學館, 1982, p 246.

17) 註15와 동일.

18) 『大宋僧史略』 卷上「服章法式」條

又後魏宮人見僧自恣 偏袒右肩 乃一施肩衣 號曰偏衫 全其兩扇衿袖 失祇支之體 自魏始也

『釋氏要覽』 卷上「偏衫」條

古僧衣律制 只有僧祇支(此名覆膊 亦名掩腋衣) 此長覆左膊及掩右掖蓋 三衣故即天竺之儀也 竺道祖魏錄云 魏宮人見僧袒一 不以爲善 乃作偏袒縫於僧祇支上相從因名偏衫(今開脊接領者蓋遺魏制也)

『佛制比丘六物圖』

此方往古並服 祇支至後魏時始加右袖 兩邊合謂之偏衫 裁領開裙猶存本相 故知偏衫左肩即本祇支 右邊即覆肩衣也

19) 불상의 중국화란 불상의 原形인 인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금씩 중국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즉 얼굴은 온화하게 미소짓는 가름한 귀족적 형태를 나타내며 신체는 세장하고 양감 표현은 약화된다. 특히 법의 표현에서는 通肩 着衣法이 주류를 이루는데 大衣를 복

그러나 실제로 편삼 착의법은 北魏보다는 北齊나 北周의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연구자가 확인한 가장 이른 예는 上海博物館所藏의 東魏代의 石佛坐像 <도판 4>이 있다. 이 불상은 우견편단의 대의 위에 편삼을 착의하고 있는데, 편삼 끝을 內衣인 僧脚岐 위에 아주 짧게 표현하여 마치 내의 위에 꿰매어 놓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또 편삼 가장자리는 일정한 너비의 띠로 두르고 있어 대의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⁰⁾.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미 北魏대에 창안된 편삼 착의법이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먼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제작 사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통일신라 편삼 착의불상의 제작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라 遣唐使의 활동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추적해보고자 한다.

1. 문헌상의 기록

『三國遺事』 「慈藏定律條²¹⁾에 의하면 중국에서 돌아온 慈藏은 僧俗의 옷이 중국과 같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겨 唐의 복장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건의하여²²⁾ 眞德王 3년(649) 신라는 중국의 衣冠을 착의하게 된다²³⁾. 또 이에 앞서 金春秋도 복제 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²⁴⁾. 이러한 기록은 『續高僧傳』과 『大覺國師文集』에도 전한다. 『續高僧傳』에 의하면 자장이 중국의 복식을 받아들여 온

부까지 내려 끝단과 옷주름은 넓은 U자형을 이루며 대의 안에 사선의 內衣가 표현된다. 또 裙衣를 묶은 띠매듭이 길게 내려뜨려지고, 좌상의 경우 대의의 중첩된 옷자락은 무릎과 대좌 아래로 흘러내려 이른바 裳懸座를 나타낸다.

이러한 服制를 長廣敏雄은 北魏式 복제, 小衫—雄은 冕服式 복제라 했으며, 揚泓은 褒衣博帶式, 吉村恰은 紳帶式 복제라 부르고 있다. 모두 중국 天子나 귀족의 복제와 유사하며 인도식 착의법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褒衣博帶式 법의 표현은 중국 漢민족의 전통적인 착의 형식, 즉 소매와 몸통 폭이 넓은 의복(褒衣)에 폭이 넓은 띠(博帶)를 묶어 중국식 착의법에 맞게 표현함으로써 성립한 형식이다.

20) 통일신라시대 편삼 착의불상 중 편삼 가장자리에 띠를 둘러 장식한 예로는 慶州 南山의 三陵溪石造如來坐像①, ②와 부영골 磨崖如來坐像을 들 수 있다.

21) 『三國遺事』卷4 意解 「慈藏定律條

…欲令緇素衣漸愧 東國衣冠上國裁

22) 『三國遺事』1卷 紀異 第1 「太宗 春秋公」條

…太宗王代 始服中國衣冠牙笏

23) 『三國遺事』卷4 意解 第5 「慈藏定律條

常以邦國服章不同諸夏 舉議於朝 簽允曰藏 乃以眞德王三年己酉 始服中朝衣冠

24) 『通典』卷185 東夷 上 新羅

大唐貞觀二十二年 其王金春秋來朝 拜爲特進 請改章服以從華制

나라가 모두 이를 따랐다²⁵⁾고하며, 또한 大覺國師 義天은 자장이 당의 복식을 받아들일 것을 상소하자 국왕이 이를 허락했다고 전하고 있다.²⁶⁾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복식은 진덕왕 3년인 649년을 기점으로 '中國化'라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여기에는 僧服의 中國化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승복의 중국화²⁷⁾란 지금까지 주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특징²⁸⁾과 함께 편삼 착의법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라 사회의 분위기는 중앙박물관소장의 金銅藥師如來立像(보물 328호)과 같은 편삼을 착의한 불상 제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僧侶服이었던 편삼 착의법이 불상의 법의로 채용된 것인데 불상의 법의 표현에 일종의 리얼리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²⁹⁾ 이렇게 현실의 승려복이 불상에 적용된 이유와 이것이 圖像적으로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불상 조성에 있어서 보살상의 경우 보살상이 착의한 衣服·寶冠을 포함한 장신구 등은 당시 중국의 왕후 귀족들이 실제로 입고 착용하던 것에 그 모티브를 둔 것처럼 편삼 역시 현실의 승려복을 불상의 법의로 借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시 禪宗의 영향³⁰⁾으로 왕성한 僧像³¹⁾의 제작도 편삼 착의법 유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

25) 『續高僧傳』卷24, 慈藏傳

26) 『大覺國師文集』 권12

27) 法衣의 중국화란 통견 착의법으로 이때 대의 앞단이 복부까지 내려와 U자형을 이루며, 그 안에 사선의 내이가 표현된다. 또 내의 위에서는 裙衣를 묶은 띠매듭이 대의 밖으로 길게 내려드러진다. 입상은 大衣 옷자락들이 중후하게 중첩하고 있고, 좌상은 대의의 중첩된 자락들이 무릎을 거쳐 대좌 아래로 흘러내린 이른바 裳懸座를 이루는 새로운 中國式 법의를 나타낸다. 이러한 복제를 長廣敏雄은 北魏式 服制, 小杉一雄은 冕服式 服制, 楊弘은 褒衣博帶式 服制라 했고, 吉村愔은 紳帶式 服制라 했다. 이것은 모두 法衣가 중국의 天子 또는 貴族 복제의 영향으로 인도식 착의법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명대, 『중국 남북조 불상양식 연구의 과제』, 『미술자료』 제63호, 국립중앙박물관, 1999.)

28) 註20) 참조

29) 정예경, 앞의 책.

30) 秦弘燮, 『佛教와 美術』, 『韓國佛教美術』, 文藝出版社, 1998, p 15.

31) 僧像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는 元曉와 義相像을 들 수 있다.

『三國遺事』卷四, 義解第五

元曉佛羈 既入寂 聰碎遺骸 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聰時旁禮 像忽迴顧 至今猶顯矣 曉嘗所居穴寺旁 有聰家之墟云 讚曰 角乘初開三昧軸 舞壺終掛萬街風 月明瑤石春眠去 門掩芬皇顯影空

『擇里志』卜居總論 山水

新羅時 僧義相得道 將入西域天竺 植杖於所居寮門前簷內曰 吾去後 此杖必生枝葉 此 樹不枯死 則可知吾不死也 義相去來 寺僧卽所居 塑義相像安寅

『三國遺事』卷三 興法第四 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

을 것으로 생각된다.³²⁾

중국에서도 편삼 착의법은 佛像보다는 僧侶像에서 많은 제작사례를 보이는데³³⁾ 특히 편삼 착의법과 동반하는 법의의 장식요소인 어깨 끈 장식³⁴⁾은 佛像보다는 오히려 僧侶像³⁵⁾이나 高僧들의 초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의표현이어서 이러한 추정은 가능하다.

이상의 문헌 기록으로 볼 때 통일신라 편삼 착의법은 시기적으로 7세기 중엽경에 시작되었으며 승려복으로 먼저 수용되었다가 점차 불상의 법의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신앙적 배경

『三國遺事』 「賢瑜珈 海華嚴」條³⁶⁾에 의하면 慶州 南山의 茸長寺에는 慈氏

東壁 坐庚向泥塑 我道 厭觸 惠宿 安含 義湘 西壁 坐甲向泥塑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

『三國遺事』 卷五 避隱第八 念佛師條

南山東麓 有避里村 村有寺 因名避里寺 寺有異僧 佛言名氏 常念彌陀 聲聞于城中 三百六十坊 七萬戶 無不聞聲 聲無高下 琅琅一様 以此異之 莫不致敬 皆以念佛師爲名 死後泥塑眞儀 安于 敏藏寺中 其本住避里寺 改明念佛寺.

32) 현재 最古의 佛像 作例로 알려져 있는 <祿園布施圖>(A.D. 1C末)에는 佛陀와 僧侶가 같이 표현되어 있어 이들의 의복표현 비교가 가능하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佛衣와 僧衣가 구별되지 않고 같이 통견 착의법을 하고 있어 法衣 製創時에는 佛陀와 僧侶의 옷은 같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3) 敦煌石窟 제290굴의 본존은 通肩着衣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왼쪽의 아난상은 大衣와 內衣 사이에 偏衫을 살짝 끼여다가 다시 늘어뜨리는 B형식의 편삼착의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敦煌石窟 제303굴의 벽화의 승려상은 편삼착의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견편단으로 입은 大衣는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옷자락은 검정 색을 채색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偏衫을 표현한 것이다.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東京:平凡社, 1981.

34) 왼쪽 어깨 위의 띠매듭은 갈고리와 끈을 이용하여 가사를 고정시키는 법의 장식인 纓總이다. 그 사용방법을 보면 왼쪽 어깨 뒤쪽에 方帖을 붙여 그 곳에서 갈고리를 늘어뜨리는 한편 가사의 오른쪽 끝에 끈을 누벼 달아 그 끈을 왼쪽 어깨에서부터 내려오는 갈고리에 통과시킨 뒤, 그것을 리본 모양으로 묶어 가사를 고정시킨다. 갈고리와 끈을 이용해서 가사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인도나 그 주변지역의 불상에 표현된 예는 전혀 없다. 중국의 경우 隋代 불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는 형식인데 이 역시 현실의 승복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정예경, 앞의 책, pp. 135~136.)

이 영총 매듭 아래로 삼각형의 옷주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삼각형 옷주름을 鄭恩雨(「高麗後期の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 제33호, 1983.)는 14세기 고려후기 충청도지역 佛·菩薩像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고려후기에는 영총 매듭이 생략되고 삼각형의 옷주름이 형식화되어 왼쪽 팔 위로 옮겨지는 변화를 보인다.

35) 가장 대표적인 작례로 慶南 海印寺 木造希郎大師像(보물 제999호)이 있다.

36) 『三國遺事』 卷4 意解 第5 <賢瑜珈 海華嚴>

瑜珈祖大德大賢, 住南山茸長寺. 寺有慈氏石丈六. 賢常旋繞 像亦隨賢轉面.

石丈六像이 있어 이 절의 주지 太賢은 언제나 그 석불 주위를 돌며 예불했다고 한다. 太賢이 예불한 것으로 추정되는 葺長溪 三輪臺座佛像의 뒷면 착의 표현을 살펴보면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를 연결하는 사선의 옷자락은 우견편단으로 입은 大衣를 표현하였고, 다시 대의 아래에는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옷자락인 偏衫을 착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法相宗³⁷⁾계 사찰인 葺長寺 불상은 偏衫을 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法相宗에서는 偏衫 着衣法을 종파내의 正服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와 함께 慶北 金川의 靑岩寺 修道庵 石造毘盧遮那佛坐像에서도 편삼 착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불상의 측면을 보면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사선의 대의자락이 있고, 이 대의 아래 편삼은 오른쪽 어깨와 팔을 감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청암사 불상과 같이 如來形 비로자나불을 주존불로 삼았던 華嚴宗에서도 偏衫 着衣法을 종파내의 正服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⁸⁾

이상의 문헌과 제작사례로 보아 통일신라 일부 종파 즉 法相宗과 華嚴宗에서는 편삼 착의법을 종파 내부의 正服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遣唐使의 영향

통일신라의 편삼 착의법과 어깨 위에 보이는 띠 매듭은 중국 山東지역 불상과 서로 공통점을 보여 주는데³⁹⁾, 五峰山 蓮花洞 主尊佛, 駝山石窟 2窟 本尊佛, 雲門山 1窟 本尊佛, 神通寺 四門塔 四方佛, 神通寺 千佛崖 佛龕群·2호·3호 大龕 佛像 및 그 외의 여러 小佛像 등 주로 산동 지역의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표 2>⁴⁰⁾ 이렇게되면 중국의 편삼 착의법과 어깨 위의 띠 매듭과 같은

37) 法相宗은 主經典인 『解深密經』을 해석한 『瑜伽師地論』과 그것을 주석한 『成唯識論』을 전거로 널리 諸法의 性相을 구명하려고 하는 敎學으로 瑜伽宗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法相宗은 玄奘三藏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하여 慈恩大師 窺基가 一宗으로 성립시켰다. 중국 法相宗의 승려로는 慧沼(650~714)와 智周(668~723)등이 있으며 智周 이후 중국 法相宗은 쇠퇴하였다. 신라인 가운데 法相을 공부한 사람이 많은데 圓測, 元曉, 神昉, 順景, 道證 등이 있다.

38) 강우방선생은 智拳印이라는 특이한 手印으로 인하여 着衣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韓國 毘盧遮那佛像의 成立과 全開』,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그러나 手印, 다시 말해 손의 위치에 따라 옷주름 표현은 달라 질 수 있으나 착의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견해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39) 梁銀景, 「中國 駝山石窟 佛教彫刻에 대한 考察-第2·3窟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40) 산동 이외의 지역으로는 下南省 龍門石窟 賓陽南洞 本尊佛, 甘肅省 炳靈寺 8窟 西壁 佛坐像, 山西省博物館藏의 阿難立像 등에서 볼 수 있다.

법의의 장식적 표현은 시기적으로는 隋·初唐代에, 지역적으로는 山東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편삼·어깨 끈 표현이 있는 中國 造像의 제작사례

명 칭	지 역	조성연대
五峰山 蓮花洞 主尊佛	山東省	北齊~隋
炳靈寺 8窟 西壁 佛坐像	甘肅省	隋
山東省博物館藏 佛坐像	山東省	隋
駝山石窟 2窟	山東省	隋末~唐初
雲門山石窟 1窟	山東省	隋末~唐初
龍門石窟 賓陽南洞 本尊佛像	下南省	641년(추정)
神通寺 千佛崖	山東省	貞觀 18年銘佛坐像
		顯慶 2年銘佛坐像
		顯慶 3年銘二佛並坐像
		顯慶 3年銘二佛並坐像
		多數의 小佛坐像
藥山 三尊佛	四川省	盛唐

그런데 중국의 산둥과 통일신라 두 지역에서 편삼 착의법이 유행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다. 즉 통일신라에서 편삼 착의법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시점은 8세기대임에 반해 중국에서는 隋~初唐代인 7세기대로 두 지역 사이에는 상당한 傳世기간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거리를 신라 遣唐使 파견 기록과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중국 山東지역과 통일신라 불상의 비교 고찰은 주목된 바 있다.⁴¹⁾ 지리적으로 山東은 신라 遣唐使의 이동행로⁴²⁾중 하나인 黃海北路상에 위치하며,

41) 山東 諸城 出土의 北魏나 東魏代로 올라가는 불상들 중에는 고구려의 불상과 매우 흡사한 양식을 보이는 상들이 있어서 상호 관련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北魏代로 추정되는 石造如來立像은 고구려의 延嘉 7年銘 金銅如來立像과 비교되고, 東魏代로 추정되는 金銅三尊佛像은 고구려의 辛卯銘 金銅三尊佛像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서 양 지역의 깊은 연관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를 참조하였다.

金春實, 「百濟 美術의 對中交涉」 『百濟 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1998.

金理那, 「高句麗 佛教彫刻 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 交涉』, 예경, 1996, pp 117~118.

郭東錫, 「金銅製-光三尊佛의 系譜- 韓國과 中國 山東 지방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국립중앙박물관 51, 1993.

42) 權惠永(『新羅 遣唐使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박사학위논문, 1990, pp 160.)은 신라 遣唐使의 이동행로를 慶州-唐恩浦-黃海北部-登州-長安을 잇는 北路와 慶州-會津-黃海南部-江淮-長安을 잇는 南路로 보고 있다.

또 이곳에는 龍興寺와 醴泉寺라는 新羅院이 있어 중국 어느 지역 보다 신라 遣唐使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을 오가던 견당사에 의해 산동 지역의 불상이 보다 직접적으로 신라로 전해졌음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여기에서 신라 견당사 파견 기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眞德王·武烈王 재위기간인 7세기 중엽과 聖德王·孝成王·景德王·惠恭王 재위기간인 8세기 초·중반, 憲德王·興德王 재위기간인 9세기 초반에 특히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표 3> 이 가운데 먼저 7세기에는 왕성한 견당사 파견기록에도 불구하고 불상에서는 아직 편삼 착의법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신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에 있어서 7세 중엽은 삼국통일 전쟁기로, 이 시기 견당사 활동은 謝恩·朝貢·請兵·勝戰報告 등 주로 정치·군사적 목적⁴³⁾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표 4> 문화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신라의 정치적 상황은 편삼 착의법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한다.

7세기 중엽의 공백기를 지나 聖德王~惠恭王 재위기간인 8세기 초·중반에는 다시 견당사의 파견이 왕성해진다. 이 시기⁴⁴⁾는 삼국통일 후 안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唐의 선진 문화를 수입했던 시기로 편삼 착의불상 또한 많은 제작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43) 新羅 遣唐使의 활동은 시기별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삼국통일 이전의 遣唐使 활동은 政治·軍事使節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시기 신라의 최대 과제는 麗濟침략으로부터 自國을 보전하는 일이었으므로 대외정책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 견당사 활동 내용을 보면 謝恩·朝貢·請兵·勝戰報告 등의 政治·軍事的 활동이 주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경제·문화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이 시기 文化·經濟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政治·軍事的인 활동의 부수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7세기 중반의 신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통일이전의 신라 遣唐使는 政治·軍事使節이었다고 할 수 있다.(權惠永, 앞의 책.)

44) 삼국 통일이 견당사의 활동은 經濟·文化的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전부터 계속되던 對唐 政治활동은 대부분 賀正·謝恩·告哀와 같은 의례적인 활동이었던 반면 당시 唐은 經濟와 文化的 최전성기를 이루었으므로 遣唐使 활동 역시 經濟·文化的 활동이 주류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당시 견당사 파견 목적이 請兵, 勝戰報告와 같은 군사적 목적에 의한 파견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경제적 활동에는 문화적 활동도 병행되었을 것이다. 또한 신라의 구법승과 유학생들이 사절단을 따라 중국을 왕래한 기록은 삼국통일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것이 본격화된 때는 삼국통일 이후였다.(權惠永, 앞의 책)

<표 3> 신라 遣唐使 파견기록

왕	재위기간	횟수	빈도율
眞平王	579~631	8	0.15
善德王	632~646	10	0.60
眞德王	647~653	8	1.14
武烈王	654~660	6	0.85
文武王	661~680	14	0.70
神文王	681~691	1	0.09
孝昭王	692~701	1	0.10
聖德王	702~736	46	1.31
孝成王	737~741	3	0.60
景德王	742~764	16	0.69
惠恭王	765~779	12	0.80
宣德王	780~784	2	0.40
元聖王	785~798	4	0.20
昭聖王	799~799	1	1.00
哀莊王	800~808	5	0.55
憲德王	809~825	11	0.60
興德王	826~835	9	0.90
神武王	839~839	1	1.00
文聖王	839~856	4	0.22
憲安王	857~860	1	0.25
景文王	861~874	4	0.28
憲康王	875~885	5	0.45
眞聖王	887~896	6	0.60
孝恭王	897~911	1	0.06

<표 4> 신라 遣唐使 활동내용

王 (在位其間)	謝恩	賀正	朝貢	獻上	請兵	勝戰報告	告哀	宿衛	기타	누계
眞德王 (647~653)	1	2		1	2	1		1		8
武烈王 (654~660)			1		2	2		1		6
⋮										
聖德王 (702~736)	3	15	8	12				2	6	46
孝成王 (737~741)		1	1				1			3
景德王 (742~764)	2	7	4	1				1	1	16
惠恭王 (765~779)	2	3	4	2				2		12
⋮										
哀莊王 (800~808)	3	2								5
憲德王 (809~825)		5	1	2			1	1	1	11
興德王 (826~835)	2	4	1				1		1	9
⋮										

VII. 맺음말

지금까지 통일신라 偏衫 着衣法을 제작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제작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偏衫은 右肩偏袒으로 노출된 오른쪽 어깨를 가리기 위한 작은 천으로 중국에서 창안된 새로운 불상 착의법이다. 여기에는 인도와는 다른 중국의 기후조건과 신체노출을 꺼리는 중국인의 의복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편삼 착의법은 통일신라의 불상에서도 그 제작사례가 적지 않은데, 시기적으로 신라 遣唐使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偏衫을 착의한 불상은 隋末~唐初의 山東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山東은 신라 遣唐使 이동행로 중 하나인 黃海北路상에 위치하며, 龍興寺와 禮泉寺라는 신라원이 있어 신라 건당사의 왕래가 특히 빈번했던 곳으로 당시 이 지역을 오가던 건당사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사례 또한 遣唐使의 문화적 활동이 왕성하던 8세기 초·중반경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추정은 더욱 가능하다.

그러나 偏衫 着衣法이 우리 나라에 처음 전해진 시점은 이보다 앞서 唐에서 돌아온 慈藏律師가 僧俗의 복식개혁을 제안했던 7세기 후반경으로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본다.

다음으로 偏衫 着衣法과 불교 宗派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三國遺事』 「賢瑜珈 海華嚴」條 기록을 보면 法相宗계 사찰인 남산의 용장사지의 삼륜대좌 불은 편삼을 착의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法相宗에서는 편삼 착의법을 종파내 正服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靑岩寺 修道庵의 비자나불좌상도 편삼을 착의하고 있는데 이는 如來形 비로자나불을 주존불로 삼았던 華嚴宗에서도 偏衫 着衣法을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시대 법상종과 화엄종에서는 편삼 착의법을 종파내의 正服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偏衫 着衣法과 함께 등장하는 어깨 끈 장식은 如來像보다는 僧侶像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의 승려복이 불상에 채용한 것으로, 법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사실주의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偏衫 着衣法은 불상 앞면의 착의 표현이 양쪽 어깨 모두를 법의로 감싸고 있다는 점에서 通肩 着衣法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불상의 왼쪽과 오른쪽의 法衣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이는 불상의 뒷면 착의 표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상은 뒷면의 착의표현이 생략·단순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實見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상황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불상 착의법 연구의 큰 장애였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를 계기로 불상 착의법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參考文獻

-사료

『史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儀禮注疏』, 『禮記』, 『擇里志』

-도록

國立慶州博物館, 『特別展 慶州南山』, 1995.

金元龍·姜友邦, 『慶州南山』, 悅話堂, 1987.

上海博物館, 『中國古代雕塑館』, 上海古籍出版社, 1996.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朝鮮寶物古蹟圖錄, 1940.

黃壽永 편저, 『國寶』石佛, 한국브리태니커, 1989.

黃壽永 편저, 『國寶』金銅佛·磨崖佛, 한국브리태니커, 1989.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東京:平凡社, 1981.

-논문·단행본

姜友邦,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_____, 「統一新羅彫刻論」『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3.

_____,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_____, 「韓國毘盧遮那佛의 成立과 全開-圓融의 圖像的 實現-」, 『美術資料』44, 1989.

金相鉉, 「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順景」, 『가산학보』2, 1993.

金元龍, 「芬皇寺石佛群」『韓國美術史研究』, 一志社, 1994.

金載元, 「宿水寺址 出土 佛像에 對하여」『震檀學報』19, 震檀學會, 1958.

가마다 시게오 著, 신현숙 譯, 『한국불교사』, 민족사, 1994.

郭東錫, 「南山遺蹟 佛像考察」, 『慶州南山の 佛教遺蹟』III,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_____, 「金銅製一光三尊佛의 系譜-韓國과 中國 山東 지방을 중심으로-」『美術資料』, 국립중앙박물관 51, 1993.

國立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の 佛教遺蹟 II』, 1997.

_____, 『慶州南山の 佛教遺蹟 III』, 1998.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1.

_____, 「三國時代의 佛像」,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3.

- _____, 『高句麗 佛教彫刻 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1996, pp 117~118.
- 金英美,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1994.
- 金春實, 『百濟 彫刻의 對中交涉』, 『百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1998.
- 文明大, 『統一新羅彫刻論』,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3.
- _____, 『韓國彫刻史』, 열화당, 1992.
- _____, 『百濟四方佛의 起源과 禮山石柱四方佛像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 1987, 민족사.
- _____, 『新羅下代毘盧遮那佛彫刻의 研究』, 『美術資料』, 國立中央博物館 21·22, 1977.
- _____, 『新羅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上·下)』, 『歷史學報』62·63, 1974.
- _____, 『太賢과 葺長寺의 佛教彫刻』, 『百山學報』17, 1974.
- 朴慶植, 『統一新羅石造美術研究』, 學研文化社, 1994.
- 朴永福·趙由典, 『禮山百濟四面石佛調査 및 發掘』 『文化財』16, 文化財管理局, 1983.
- 溫玉成·裴珍達, 『中國石窟과 文化藝術』, 景仁文化社, 1996.
- 李龍範 譯, 『大唐西域求法高僧傳』, 現代佛教新書 25, 東國大學校附設譯經院, 1980.
- 李智冠, 『律藏比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任榮子, 『韓國宗教服飾』-佛教와 道教服飾을 中心으로, 아세아문화사, 1990.
- 鄭性本, 『新羅禪宗의 研究』, 민족사, 1995.
- 鄭禮京, 『北齊·北周·隋 如來像의 着衣形式』, 『科技考古研究』제3호, 아주대학교박물관, 1999.
- _____, 『중국 복제·복주 불상연구』, 혜안, 1998.
- 鄭恩雨, 『高麗後期의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제33호, 1983.
- 秦弘燮 편저,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96.
- 秦弘燮, 『新羅 北境地域 佛像의 고찰』 『新羅·高麗時代 美術文化』, 一志社, 1997.
- 崔完秀, 『간다라佛衣考』, 『佛教美術』1, 東國大學校博物館, 1982.
- 崔完秀, 『二重着衣考』, 『考古美術』154·155, 한국미술사학회, 1982.
- 韓國佛教研究院, 『新羅의 廢寺Ⅱ』, 一志寺, 1977.
- 玄奘 著, 權德周 譯, 『大唐西域記』, 우리출판사, 1994.

-학위논문

- 權惠榮, 『新羅 遣唐使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金春實, 『三國時代 如來像 研究』-着衣形式의 分析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 梁銀景, 『中國 駝山石窟 佛教彫刻에 대한 考察』-第 2·3窟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

-일문

岡田健・石松日奈子, 「中國南北朝時代の如來像着衣の研究(上下)」, 『美術研究』356・357, 1993.

久野健「東ヤシ」ヤの佛像と偏衫『古代小金銅佛』, 小學館, 1982.

大西修也, 「百濟 石佛坐像-益山蓮洞里石造如來坐像」『佛教藝術』107, 1976.

_____, 「軍威石窟三尊佛考」, 『佛教藝術』129, 1973.

小杉一雄, 「裳懸座考」, 『佛教藝術』5, 1949.

楊弘, 「試論南北朝前期佛像服飾的主要變化」, 『考古』, 1963.

逸見梅榮, 『佛像の形式』, 東出版, 1982.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朝鮮寶物古蹟圖錄, 1940.

井筒雅風『法衣史』, 雄山閣出版.

_____, 『袈裟史』, 雄山閣出版.



〈도판 1〉 三陵溪 石造如來坐像②(앞면)



〈도판 1-1〉 三陵溪 石造如來坐像②(뒷면)



〈도판 2〉 甘山寺 石造如來立像



〈도판 3〉 石造如來立像(네즈美術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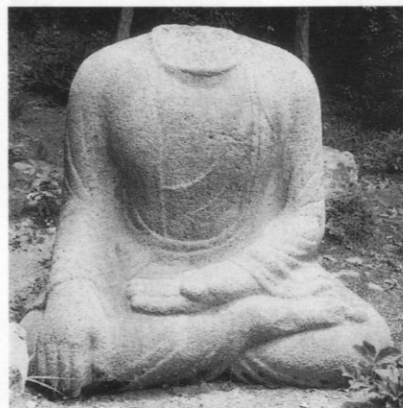
〈도판 4〉 石造如來立像(上海博物館)



〈도판 6〉 菩提寺石造如來坐像



〈도판 5〉 새갓골 石造如來坐像(뒷면)



〈도판 5-1〉 새갓골 石造如來坐像(앞면)



〈도판 7〉 觀龍寺 石造如來坐像



〈도판 8〉 敦煌莫高窟 第45窟 僧侶像



〈도판 9〉 冠峰石造如來坐像



〈도판 10〉 三陵溪 石造如來坐像①



〈도판 11〉 부엉골 石造如來坐像



〈도판 12〉 金銅藥師如來坐像(보물제328호)(앞면)



〈도판 12-1〉 金銅藥師如來坐像
(보물제328호)(뒷면)



〈도판 13〉 宿水寺址 石造如來坐像



〈도판 14〉 栢栗寺 青銅如來立像